■ 민족문화연구 제99호(2023.0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013-040.
http://doi.org/10.17948/kcs.2023..99.013

【 특집 : 한국 근대의 지식 문화 탐색과 한국학 영문 사전 편찬 】

1920년대 중후반 홍명희의 저술과 편찬 활동*
—『학창산화』와 『조선사연구초』를 중심으로—

류시현(柳時賢)**

목 차

1. 머리말
2. 「학창산화」의 집필과 구성 체계
3. 『학창산화』의 내용과 '보통' 지식
4. 『조선사연구초』의 편집과 출판
5. 맺음말

국문초록

일제강점기 사상사·문화사의 구성을 위해서는 작가의 언론매체에 게재한 글과 이를 편집해서 출판한 책에 관한 분석이 요구된다. 1920년대 중후반 홍명희의 저술 및 편집자로서의 활동은 당대 학예 영역의 구성에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는 1924-25년 『동아일보』 학예란에 게재했던 자신의 글을 모아, 1926년에 『학창산화』라는 단행본을 출간했다. 이와 동시에 1924-25년 『동아일보』, 『시대일보』 등에 게재된 신채호의 글을 모아 1929년 6월에 『조선사연구초』를 출간했다.

민족운동사와 사상사 및 사학사의 관점에서 신채호와 홍명희에 관해 많은 연구성과가 축적되었다. 그렇지만 1920년대 홍명희 『학창산화』와 신채호의 『조선사연구초』의 편찬 과정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조선도서주식회사를 통해 출판된 홍명희가 집필하고 관여했던 『학창산화』와 『조선사연구초』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특히 신문에 연재되었던 글이 책으로 재구성되는 매체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동아일보』 학예란에 소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신문매체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 대중 지식 혹은 '보통' 지식의 내용을, 그리고 신문매체에 수록된 신채호의 글이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국영문사전 편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21-CKD-123002).
** 광주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책『조선사연구초』으로의 편집 과정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첫째,『동아일보』「학예란」에「학창산화」로 소개된 글들의 체계와 내용에 관해, 둘째, 1926년에 출판된『학창산화』에서 재구성된 '지식'의 범주와 구축과정을 셋째, 1924-25년에 신문에 게재된 신채호의 역사 관련 글이 1929년에 홍명희가 편집자로 참여했던『조선사연구초』로 어떻게 출판 체제와 내용이 전환되는지를 검토했다. 이를 통해 1920년대 식민지 조선 대중 출판물의 편집 과정 및 '독자'의 구성 과정을 조망했다.

주제어: 신채호, 최남선, 홍명희, 학창산화, 조선사연구초.

1. 머리말

일제강점기 사상사·문화사의 구성을 위해서는 작가의 언론매체에 게재한 글과 이를 편집해서 출판한 책과의 연계 과정에 관한 분석이 요구된다. 1920년대 중후반 홍명희의 저술 및 편집자로서의 활동은 당대 학예 영역의 구성에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는 1924-25년『동아일보』학예란에 게재했던 자신의 글을 모아, 1926년에『학창산화』라는 단행본을 출간했다. 이와 동시에 1924-25년『동아일보』,『시대일보』등에 게재된 신채호의 글을 모아 1929년 6월에『조선사연구초』를 출간했다. 즉 1920년대 중후반 홍명희는 조선도서주식회사를 통해 자신의 책과 신채호의 글을 편집한 2권의 책을 출판했던 것이다.

민족운동사와 사상사 및 사학사의 관점에서 신채호와 홍명희에 관해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그렇지만 1920년대 홍명희와 신채호의 저서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저작활동과 관련해서『학창산화』에 관해서는 강영주의 소개 형식의 글,[1]『조선사연구초』에 관해서는 박걸순의 글[2]이 있다. 아울러 두 권의 책을 출판한 조선도서주식회사의 1920-30년대 설립과 활동이[3] 규명되었다. 그렇지만 조선도서주식회사를 통해 홍명희가 집필하고 관여했던『학창산화』와『조선사연구초』를 함께 살펴보는

1) 강영주,『벽초 홍명희 평전』, 사계절, 2004, 134-136면; 강영주,「자료정선 홍명희,『학창산화』」,『개념과 소통』13, 한림과학원, 2014, 196면.
2) 박걸순,「1920년대 신채호의 역사인식과 역사서술—『조선사연구초』를 중심으로」,『호서사학』5, 호서사학회, 2008 참조.
3) 방효순,「조선도서주식회의 설립과 역할에 대한 고찰」,『근대서지』4, 근대서지학회, 2012.

것이 홍명희 개인의 활동을 넘어서 당대 지성사의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신문에 연재되었던 글이 책으로 재구성되는 매체의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연재 글이 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관해서는 문학(소설)의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한 필자의 연재 글이 같은 저자의 이름으로 책이 될 경우에 별다른 내용과 편집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이광수의 경우 『매일신보』에 연재된 「무정」이 책 『무정』으로 혹은 전집 안의 『무정』으로 正典化되는 과정에서 많은 변용이 존재했다.[4] 여행기를 제외하고, 매체의 전환과 관련해서 논설, 기고문 형식으로 이루어진 신문 게재 글이 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동아일보』 학예란에 소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신문매체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 대중 지식 혹은 '보통' 지식의 내용을, 『조선사연구초』에서의 편집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동아일보』 「학예란」에 「학창산화」로 소개된 글들의 체계와 내용에 관해, 둘째, 1926년에 출판된 『학창산화』에서 재구성된 '지식'의 범주와 구축과정을 셋째, 1924-25년에 신문에 게재된 신채호의 역사 관련 글이 1929년에 홍명희가 편집자로 참여했던 『조선사연구초』로 어떻게 출판 체제와 내용이 전환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1920년대 식민지 조선 대중 출판물의 편집 과정 및 '독자'의 구성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학창산화」의 집필과 구성 체계

1924-25년 『동아일보』에는 홍명희와 신채호의 글을 비롯해서 이광수의 소설 『재생』, 안창호의 글 등이 공존했다. 단일한 정치·경제적 입장을 나타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홍명희가 1924년 10월부터 『동아일보』에 「학창산화」를 연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당시 그가 동아일보사에 관계를 맺고 있었다. 『동아일보』에 신설된 「학예란」의 일환으로 홍명희의 「학창산화」가 연재된 점에서 확인된다.

---

4) 하타노 세츠코, 최주한 옮김, 『무정을 읽는다』, 소명출판, 2008 참조.

「학창산화」는 『동아일보』가 신설한 「학예란」에서 게재된 근대 및 조선 관련 지식을 신문을 구독하는 대중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한 기획으로 이루어졌다. '학예'는 정치와 경제 영역과는 다른 자연계, 과학계, 예술계의 주제를 의미한다. 「학예란」을 새로 만든 이유에 관해 『동아일보』는 "지식은 권력"이라고 전제하고 "우리는 각 전문가의 기능을 빌려 과학의 민중화를 목표로 하는 동시에 일상생활에 실제적 裨益을 공급하여서 생활의 향상 발전을 도모"[5]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동아일보사를 말한다.

홍명희의 『학창산화』에 수록된 글은 『동아일보』에 「학예란」과 「학창산화」의 제목으로 소개되었다. 전반적으로 발표된 글의 내용은 '전문가'의 글이 바탕이 되어 '과학의 민중화'를 지향한 것이다. 식물과 동물을 포함한 과학 관련 지식과 근대적 지식 및 '조선적인 것'에 관한 주제가 대부분이었다. 1924년 10월부터 1925년 11월 사이에 「학예란」과 「학창산화」에 발표된 글과 제목은 아래와 같다.

〈표 1〉 『동아일보』의 「학예란」, 「학창산화」의 소개 내용

1924년 10월 (학예란, 1면)	히말라야 山上 비극 (2일) / 사진전송 (3일) / 수자유희 (4일) / 범죄자의 특질(상) (5일) / 범죄자의 특질(하) (6일) / 史話三則 (7일) / 미국 富力의 통계수자 (8일) / 건망증 (9일) / 가치와 시대 (10일) / 멘델 법칙 (11일) / 무명인물 (12일) / 간단의 가치 (13일) / 인도사회 (14일) / 아나톨 프랑스 (15일) / 蟻國文明 (16일) / 신성한 질병 (17일) / 接脣의 유래 (18일) / 語源과 史實 (19일) / 딴고 역사 (20일) / 심령철학 (21일) / 심령현상 (22일) / 인구원리 (23일) / 新말서스 주의 (24일) / 차별 (26일) / 혼인제도 (27일) / 매음기원 (28일) / 낙타의 예비성 (30일)
1924년 11월 (학예란, 1면)	나이아가라 (1일) / 표준어 (2일) / 연초 (4일) / 라듸움 (5일) / 라듸움과 學科 (7일) / 매독 역사 (9일) / 우박 (12일) / 인격 (14일) / 독갑이 작난 (16일) / 북극 탐험 항공 (18일) / 기형아 (19일) / 기형아의 실례 (21일) / 아편 (22일) / 위대한 墳墓 (24일) / 수은으로 금을 제조 (25일) / 雪 (29일)
1924년 12월 (학예란, 1면)	鐵釘을 指南으로 사용 (2일) / 무선전신 (4일) / 무선전화 (5일) / 筆 (8일) / 油電기관차발명 (9일) / 비행기 발전사 (12일) / 비행기용도 (13일) / 비행술 (14일) / 활동사진 (15일) / 윤전인쇄기 (17일) / 진주 (19일) / 知者의 비애 (20일) / 만주어 (21일) / 한자문제 (22일) / 국제어 (23일) / 젬스랑케 이론 (24일) / 橫書문제 (25일) / 금강석 (26일) / 직업심리실험 (27일) / 멘델리 (28일) / 서적 (29일) / 금 (30일) / 연금술 (31일)

5) 「학예란 신설에 대하여」, 『동아일보』 1924.10.1., 1면.

1925년 1월 (학창산화)	歲首種種 (1일) / 오행설 (2일) / (正音) (3일) / 역법 (4일) / 古甲子 (5일) / 언어분류 (6일) / 도덕에 대하여(7일) / 蛇 (8일) / 법률 (9일) / 관우와 미신 (11일) / 蚤 (12일) / 미신 (13일) / 螢 (14일) / 철학 (15일) / 과학 (17일) / 의미있는 식물 (18일) / 植物別義(1) (19일) / 植物別義(2) (20일) / 植物別義(3) (21일) / 色覺과 감정 (22일) / 색의 속성 (23일) / 색의 상징 (24일) / 猿 (25일) / 鷄 (26일) / 犬 (27일) / 猪 (28일) / 鼠 (29일) / 牛 (30일) / 虎 (31일)
1925년 2월 (학창산화)	兎 (2일) / 龍 (3일) / 蛇 (4일) / 馬 (6일) / 羊 (7일) / 猴 (8일) / 女足 (9일) / 漢字의 訛音 (10일)
1925년 3월 (학창산화)	중복임신 (6일) / 우리 문법 (8일) / 소유격과 與格 (9일) / 受動과 發動 (10일) / 표시형용사 (11일) / 陽端과 陰端 (13일) / 명사의 어미 (14일)
1925년 4월 (학창산화)	꼿(1) (2일) / 꼿(2) (3일) / 음과 색과 향 (4일) / 花曆 (5일) / 寒食 (6일) / 꼿 (7일) / 결혼의 꽃 (8일) / 문사의 買名術 (9일) / 鼻와 연애 (10일) / 미인전 (11일) / 花信風 (12일) / 천재와 결점 (13일) / 우측통행 (14일) / 톨스토이와 재산 (15일) / 영어의 발음 (16일) / 三字打令 (17일) / 천하일품狂 (18일) / 예술질병설 (19일) / 酒 (20일) / 長壽 (21일) / 육식과 채식 (22일) / 眼球의 移徙 (23일) / 小人國 (25일) / 언어 (26일) / 인류의 역사 (27일) / 금주의 이면 (28일) / 칸트의 음악관 (29일)
1925년 5월 (학창산화)	世界一의 巨木 (1일) / 猫 (2일) / 동물의 경주 (3일) / 금식(上) (4일) / 금식(下) (5일) / 土 (6일) / 水 (7일) / 睡眠 (8일) / 食物의 종종 (9일) / 결혼 (11일) / 연초 (12일) / 악필 (14일) / 나폴레온傳 (15일) / 천재와 조숙 (16일) / 고대문명 (17일) / 死 (19일) / 死因 (20일) / 사체처치 (21일) / 연금술 (22일) / 放讒 (23일) / 토양의사 (24일) / 천재와 異聞 (25일) / 비애 (26일) / 노아홍수 (27일) / 법률 (28일) / 예술이란 무엇이냐 (30일) / 애급인의 꿈 (31일)
1925년 6월 (학창산화)	생물의 생식률 (2일) / 생물의 비행 (3일) / 부정한 금전 (4일) / 고가출판 (5일) / 부도덕 文字 (6일) / 조라의 출세 (7일) / 다다이스트 (10일) / 疑雨集 (12일) / 연초의 생산제한 (14일) / 弓足과 蜂腰(1) (16일) / 弓足과 蜂腰(2) (19일) / 대머리 (20일) / 섹스피어 (21일) / 미국의 문예 (22일) / 淚 (23일) / 立性憎惡 (24일) / 단오 (25일) / 연초의 詩趣 (26일) / 흡연경쟁 (27일)
1925년 7월 (학창산화)	파리(上) (4일) / 파리(下) (5일) / 모기 (7일) / 賣笑婦 拘束(猶太) (8일) / 부유(蜉蝣) (9일) / 賣笑婦 구속(애급과 亞細亞諸國) (10일) / 螢 (12일) / 매소부 구속(희랍) (13일) / 매소부 구속(희랍 하) (15일) / 문사의 기벽 (16일) / 蚤 (17일) / 매소부 구속(羅馬) (19일) / 생물의 內備外攻 (23일) / 우주의 법칙 (26일) / 연초의 기원 (28일) / 戀愛藥 (31일)
1925년 8월 (학창산화)	19250812 第六感 (12일) / 四庫全書 (14일) / 白燕 (26일) / 백색(1) (29일) / 백색(2) (30일) / 백색(3) (31일)
1925년 9월 (학창산화)	백색(4) (1일) / 백색(5) (3일) / 백색(6) (4일) / 백색(7) (8일) / 백색(8) (9일) / 백색(9) (10일) / 백색(10) (11일) / 백색(11) (12일) / 백색(12) (13일) / 백색(13) (15일) / 백색(14) (16일) / 백색(15) (17일) / 백색(16) (18일) / 백색(17) (20일) / 백색(18) (24일) / 백색(19) (27일) / 백색(20) (29일) / 백색(21) (30일)
1925년 10월	백색(22) (1일) / 추석(5회) (2-6일) / 경복궁의 石天祿(2회) (8-9일) / 추석(2회) (10-11일) / 추석(연재) (17-18일) / 추석(연재) (20-21일) / 추석(연재) (23-26일) / 重陽 (27일) / 추석(연재) (30일)
1925년 11월	국화 (14일) / 상ㅅ달(1) (21일) / 상ㅅ달(2) (24일)

이상의 「학예란」과 「학창산화」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홍명희의 책 『학창산화』에 수록된 부분은 1924년 10월 2일 「히말라야 산상 비극」부터 1925년 2월 7일 「양」까지의 연재물이 있고, 1925년 2월 8일 「윳」부터 1925년 8월 12일까지 「제6감」까지 필자 미상의 글이 있다. 그리고 1926년 8월 14일 「사고전서」부터 1925년 11월 24일 「상ㅅ달」까지 최남선의 글, 이상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동아일보』 「학창산화」의 내용의 소개 내용은 후술할 1926년 출판된 『학창산화』에 비해 체계성이 불분명하다. 예를 들면 1924년 11월에는 나이아가라와 같은 지리, 표준어와 같은 언어, 라듐과 같은 과학적 정보가 혼재되어 있다. 홍명희는 일본에 유학 시절부터 '자연과학'에 관한 관심이 높았다. 그렇다면 「학창산화」의 집필 시기는 어떠했을까? 이를 '십수년 전', '근래 10년', '약 20년 전' 등의 표현에서 추론할 수 있다.

① "십 수 년 전 독일 의학계 거인 코흐가 일본에 來遊하였을 때 (…) 일본에 일시 養錨熱이 盛하였다."[6]
② "근래 10년 來에 장족 진보로 발달되어 송화기의 결점도 많이 개량되고 에디슨(Edison)이 소위 진공구를 발명하여 미국전화전신회사에서 이 진공구를 라디오에 이용하게 된 뒤에 라디오는 전일의 면목을 일신하게 되었다."[7]
③ "활동사진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수입하기는 그전 전기회사다.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 洋人의 재주가 기가막힌다고 입에 침없이 칭찬들하였다."[8]

대략적인 연도를 추론할 수 있는 글을 통해 당대에 작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활동사진은 1895년에 에디슨이 발명했고, 약 '20년 전'은 1925년에 해당한다. 또한 최근의 일이란 표현이 "(신말서스주의) "미국 부인 마가렛 쌍가(Margaret Sangar)가 산아제한을 선전하러 일본까지 왔다가 國情이 다름으로 변변히 강연도 못하고 돌아간 것은 우리 기억의 새로운 바이니 쌍가의 선전하는 산아제한이 곧 말서스 주의의 요지라 할 것이다",[9] "구미 각국에서는

6) 홍명희, 「鼠」, 『동아일보』 1925.1.29.
7) 홍명희, 「무선전화」, 『동아일보』 1924.12.5.
8) 홍명희, 「활동사진」, 『동아일보』 1924.12.15.

벌써부터 소아의 遊戱諸具까지 된 라디오를 우리는 明年에나 겨우 실험하게 될 모양이다."[10] 등이 이에 해당한다.

1924년 11월 22일 「학예란」에 게재된 「아편」은 같은 날 사설 「아편에 관한 국제회의」에 연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학창산화」는 당대적 관심을 반영해서 집필되었다. 특히 아나톨 프랑스는 1924년 10월 12일 사망했는데, 홍명희는 그에 관한 기사를 1924년 10월 15일자 「학창산화」에 소개했다. 그리고 홍명희는 "프랑스 문학자 아나똘 프랑스는 마침내 지난 12일 夜에 長逝하였다 하니 씨의 향년은 81세이다"[11]라고 밝혔다.

「학창산화」는 신문의 독자인 조선인에게 당대의 時事와 관련된 '지식'을 전달하고자 했다. 아울러 대중 독자에게 읽기 편한 '유희'와 재미 및 흥미 등이 중요한 요소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런던 어떤 잡지사에서 독자에게 향하여 개에 대한 기사를 모집한 일이 있었다. 그 기사 중에는 재미난 이야기가 없지 않았다",[12]"현재 라디오가 제일 성황이기는 미국이니 (다양한 통화가-인용자) 라디오 이용의 가장 재미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13] 등에서 확인된다. '재미'가 강조된 것이다.

이외에도 「숫자 유희」와 같은 주제도 이에 해당한다. 쥐에 관한 글에서 "鼠가 이 계산과 같이 번식한다 하면 이 세계는 곧 鼠世界가 될 것이지마는 이것이 유희적 계산에 불가함으로 鼠世界는 현실이 못되는 것이다"[14]라고 해서 '유희'를 언급했다. 소설 『임꺽정』에서 '해학(諧謔)'이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학창산화」에서 대중 독자를 염두에 두면서 재미와 유희를 강조한 점은 홍명희의 글쓰기를 살펴보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홍명희가 주목한 주제는 근대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홍명희의 1920년대의 「학창산화」를 살펴보는 것은 한말-1910년대 글쓰기와의 연속과 단절을 살펴볼

9) 홍명희, 「新말서스 주의」, 『동아일보』 1924.10.24.
10) 홍명희, 「활동사진」, 『동아일보』 1924.12.15.
11) 홍명희, 「아나톨 프랑스」, 『동아일보』, 1924.10.15.
12) 홍명희, 「犬」, 『동아일보』 1925.1.27.
13) 홍명희, 「무선전화」, 『동아일보』 1924.12.5.
14) 홍명희, 「鼠」, 『동아일보』 1925.1.29.

수 있는 주제가 된다. 1920년대 중반 당시 홍명희에게 근대는 첫째, 개항과 한말 둘째, 1910년대 셋째, 제1차 세계대전 이후라는 단락이 존재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창산화」에 소개된 지식은 대부분 1920년대의 時事가 반영되었다.

홍명희의 '지식' 범주는 어떻게 구성되었을까? 「학창산화」에서 지식이 구분되었다. 과학으로 대표되는 근대 지식은 '명확한 지식' 등으로 표현되었다. 우박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면서 "중국 식자의 해석이 아주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음양이니 무엇이니 하는 얼숭덜숭한 것으로는 명확한 지식이 되기 어려우니 서양학자의 설명을 대개 소개"[15]하겠다고 밝혔다. 동양적 사고와 지식은 서양 지식의 '명확함'과 대비되었다.

홍명희에게 과학과 근대의 대척점에는 '미신'이 존재했다. 간질을 소개하면서 "간질을 신성한 질병이라 함은 그 병됨이 보통 질병과 다른 까닭이니 천연두 환자 같은 것을 一種 신성하게 보는 것과 같이 미신인 것은 사실이다"[16]라고 밝혔다. 그는 미신을 '인민을 기망하는 술책' 등으로 규정했다.

> 미신은 이성이 하락지 않는 신념과 행사를 이름이니 현대사상의 정도가 용납지 아니하는 선대 신념의 정력이거나 혹은 부정한 무리가 무엇에 利함이 있고자 하여 인민을 欺罔하는 술책이다. (…)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전례가 없지 아니하였으나 최근에 와서 그 심한 전도가 과한데 이르렀으니 시대의 退嬰인가 또는 인심의 타락인가.[17]

「학예란」을 구성하고 '학창산화'를 연재한 이유를 지식의 보급에서 찾았다. "학예란은 사회 발전의 학예적 방면을 보도하여 우리 생활에 실제적 지식을 공급하여 현대 세계의 발전적 추세를 소개함을 그 임무"[18]로 삼았다. '실제적 지식'과 관련해서 홍명희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새롭게 전달하고자 한 지식을 구분했다.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은 보통학교 학생들도 아는 것, 보통 아는 것, 유명한 것, 보편적인 것, '예비 지식' 등으로 표현되었다.

「학창산화」의 독자는 신문 구독자이면서, 보통학교 학생를 졸업한 독자층으로

15) 홍명희, 「우박」, 『동아일보』 1924.11.12.
16) 홍명희, 「신성한 질병」, 『동아일보』 1924.10.17.
17) 홍명희, 「미신」, 『동아일보』 1925.1.13.
18) 「학예란 신설에 대하여」, 『동아일보』 1924.10.1., 1면.

설정되었다. 「학창산화」의 한 글에서 "곤충 중에 완전히 사회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蜂蟻인 것은 보통학교학생들도 밝히 아는 사실이다"[19]라고 밝혔다. 혹은 "중국역사에서 재료를 취함은 쓰는 사람이 남의 蒐集한 것을 이용할 수가 있고 보는 사람은 많이 예비지식이 있는 까닭이다"[20]라고 해서 '예비 지식'으로 언급되었다. '학예'란 지식은 보통학교 졸업생 이상의 독자를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보편 지식, 예비지식은 '보통 아는 지식'으로 변주되었다. 「학창산화」에서 "우리의 보통 아는 것으로 유명한 것은 柳子厚의 捕蛇者說이다",[21] "컬럼버스가 인도 황금에 欲氣를 붙어서 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 의외에 신대륙을 발견한 것은 보편적으로 아는 사실이다",[22] "오늘날은 국제어란 말은 에스페란토 홀로 가지게 되야 인류 대불행의 한 원인을 제거할 희망이 생기었다. 이는 언어의 자체가 우월하고 창조자 인격이 숭고한 까닭이다. 에스페란토는 世人이 아는 바와 같이 싸멘호프 박사가 창조하여 1887년에 처음 발표한 것이다"[23]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른 한편 '유식'과 '무식'의 구분은 지식 습득에 대한 자극제 역할을 제공했다. 무식과 관련해서 "관우는 어떠한 인물인가 삼국 명장 관운장은 무식한 사람까지 거의 다 아는 바이다"[24]라고 표현했다. 또한 '유명한'이란 형용사 역시 지식 소개를 위한 전제였다. "홍의장군 곽재우가 왜란을 막으려고 의병을 일으키니 神馬가 스스로 이른 것은 유명한 古談이다"[25], "진주가 제목이 되었으니 古來로 유명한 진주이야기를 몇 가지 소개하겠다"[26]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보통지식과 구분된 전문적인 지식의 영역이 존재했다. 홍명희는 "광선이 어떻게 전화선으로 受信便 필름에 작용을 일으키는지는 여기 설명할 수 없으니

19) 홍명희, 「의국문명」, 『동아일보』 1924.10.16.
20) 홍명희, 「무명인물」, 『동아일보』 1924.10.12.
21) 홍명희, 「蛇」, 『동아일보』 1925.1.8.
22) 홍명희, 「금」, 『동아일보』 1924.12.30.
23) 홍명희, 「국제어」, 『동아일보』 1924.12.23.
24) 홍명희, 「관우와 미신」, 『동아일보』 1925.1.11.
25) 홍명희, 「馬」, 『동아일보』, 1925.2.6. 익숙한 고담에 관해서는 "고대에는 우리나라에도 범의 害가 상당하였든 것 같으니 범을 신령으로 위하는 옛 풍속과 姜邯贊의 이야기만 가지고도 상상할 수 있다"라고 보았다(홍명희, 「虎」, 『동아일보』 1925.1.31.).
26) 홍명희, 「진주」, 『동아일보』 1924.12.19.

궁금히 여기는 독자는 전문가에게 물어봄이 좋을 것이다"[27]라고 밝혔다. 대중 독자와 전문가를 구분한 것이다. 혼인제도와 관련해서 "이런 것을 상세히 말하려면 이가 실 것이다. 고만두는 것이 상책이요 혼인제도의 역사적 발달이나 대개 소개하려 한다"[28]라고 해서 '상세한' 설명은 신문의 「학예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홍명희가 「학예란」과 「학창산화」에 글을 쓴 기간은 동아일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던 기간이었다. 1924년 5월 홍명희는 편집국장 및 사회부장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1925년 4월 동아일보를 그만두고 『시대일보』로 자리를 옮겼다. 장신은 이 기간을 김성수와 송진우 체제가 아닌 동아일보사의 '개혁운동'이 진행된 시기로 보았다. 그러면서도 1924년 10월 김성수-송진우 체제의 출발로 홍명희의 영향력이 줄어든 시기이기도 했다.[29] 동아일보 학예란에서 1925년 1월부터 '학창산화'의 제목으로 홍명희의 글에 이어 최남선의 「백색」이 연재되었다. 그렇다면 동아일보의 입장에서 '학창산화'는 동아일보 '학예' 구성의 한 부분이 된다. 다시 말해 「학창산화」는 홍명희의 것이 아닌 『동아일보』의 기획이기도 했다.

한편 근대와 관련해서 홍명희는 "연전에 미국인 스미스가 연속적 근두비행으로 우리의 안목을 놀랜 것은 아직도 기억에 남어 있는 일이요"[30]라고 했는데, 이는 1910년대 최남선의 「용기론」에서 언급한 내용이 대비된다. 또한 홍명희는 白衣에 관해 "의복에 백색을 숭상하는 관습은 최근에 와서 심하였다 하나 역사상으로 보면 전래한지 자못 오래라 할 것이다. (…) 喪中衣 순백은 우리의 전래하는 舊俗"[31]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홍명희와 최남선이 서로 연결되는 연속성, 과학적 주제에서 문화·민속적 주제로의 전환도 살펴보아야 할 추후의 과제가 된다.

---

27) 홍명희, 「사진전송」, 『동아일보』 1924.10.3.
28) 홍명희, 「건망증」, 『동아일보』 1924.10.9.
29) 장신, 『조선·동아일보의 탄생』, 역사비평사, 2021, 81-93면.
30) 홍명희, 「비행술」, 『동아일보』 1924.12.14.
31) 홍명희, 「史話三則」, 『동아일보』 1924.10.7.

3. 『학창산화』의 내용과 '보통' 지식

1920년대 중반 당시 홍명희는 조선도서주식회사 '전무'를 지냈다고 한다.[32] 그렇지만 방효순의 연구에서 조선도서주식회사의 임원진 명단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밀접한 관련은 맺고 있었다. 저서 『학창산화』를, 편집한 신채호의의 『조선사연구초』를 비롯하여 홍명희 등이 참여한 『태서명작단편집』(1924년)이 조선도서주식회사에서 출판되었다.[33]

「학창산화」가 1926년 출판된 『학창산화』로 바뀌는 과정에서 체제와 순서의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책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주제 배치 및 상호 연관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홍명희가 생각하는 근대 지식의 보급과 체계화를 확인할 수 있다. 강영주에 따르면 『학창산화』는 87편의 컬럼에 각각의 주제는 원고지 7매 내외의 분량이었다.[34] 책 『학창산화』의 목차는 몇 가지 유형에 맞춰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다.

〈표 2〉 『학창산화』의 체계와 내용

과학/(기타)	과학, 수자유희, 질소량, 분자體積, 호열자균 번식력, 血球數, (서적총수)
동물/곤충	蟻, 낙타, 양, 蛇, 虎, 鼠, 猪, 犬, 鷄, 馬, 龍, 猿, 螢, 蚤
아편/연초	아편, 연초
무선/사진	무선전신, 무선전화, 활동사진, 사진전송
비행기/(기타)	비행기발전사, 비행술, 비행기용도, (輸轉인쇄기)
금/원소	금, 연금술, 수은으로 금을 제조, 라디움, 라디움과 학과, 금강석, 진주
기상 /(기타)	雪, 우박, (필, 서적)
색	色覺과 감정, 색의 속성, 색의 상징
기타	벨스랑케 이론, 건망증
결혼, 매독	결혼제도, 매음기원, 接脣의 유래, 탱고역사, 매독역사, 신성할 질병
범죄자	범죄자의 특성 상・하
멘델	멘델법칙, 기형아, 기형아의 실례
언어	언어분류, 표준어, 正音, 만주어, 국제어, 횡서문제, 한자문제, 어원과 史實

32) 강영주, 『벽초 홍명희 평전』, 사계절, 2004, 294면.
33) 1920-1931년 간 10여 년의 조선도서주식회사 출판 도서 목록은 방효순, 앞의 글, 79-86면 참조.
34) 강영주는 『학창산화』는 홍명희의 첫 저서로, "광범한 분야의 지식을 다루고 있고 (…) 도쿄 유학 시절 (…) 자연과학을 전공하려 했었다는 홍명희의 관심을 반영하여, 자연과학에 관한 항목들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 (…) 우리 민족문화에 대한 주체적인 의식과 동서 고금의 문물에 대한 폭넓은 식견" 등이 특징이며 "후일 『임꺽정』과 같은 탁월한 리얼리즘 역사소설을 낳게 한 원동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강영주, 같은 책, 134-136면).

기타	법률, 인도사회, 철학
심령/기타	심령철학, 심령현상, 도깨비 장난, (도덕)
역법	역법, 歲首種種, 고갑자, 오행설
식물/기타	의미있는 식물, 식물별의, (史話三則)
멜서스이론	신말서스주의, 인구원리
기타	간단, 가치와 시대, 차별, 지자의 비애, 무명인물, 미신, 관우와 미신, 아나똘 프랑스, 멘델리

「학창산화」가 책 『학창산화』로 바뀌는 상황에서 체계의 재구성이 이루어졌지만, 『학창산화』에는 시기별로 「학창산화」 가운데 실리지 않은 글이 있다. 1924년 10월에는 「히말라야 산상 비극」, 「미국 부력의 통계수치」, 「어원과 사실」이, 1924년 11월에는 「나이아가라」, 「연초」, 「인격」, 「북극 탐험 항공」이, 1924년 12월에는 「유전기관차 발명」, 「직업심리실험」이 빠져 있다. 또한 1925년 1월 30일 「牛」는 비슷한 동물의 연장선상의 내용이지만 '애독자의 투고'임이 밝혀져 있어 『학창산화』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한편 책 『학창산화』로 편집되면서 신문 연재와 달리 일정한 편집이 이루어졌다. 앞의 표에서 확인되듯이 크게 과학, 동물, 무선, 금과 원소, 색, 언어 등의 분류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1920년대 중반 조선인 독자에게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고 체계를 세워 소개한 이유가 불분명하다. 또한 중간에 괄호로 표시했듯이 서적총수, 수전인쇄기, 필, 서적, 도덕, 史話三則 등은 일련의 차례에 경향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매일의 기사를 확인하는 신문 독자와 달리 책 『학창산화』의 독자는 일정한 내용 구성의 체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체계성이 확보된 대신 일간 신문의 '시의성'과의 연계는 없어졌다. 예를 들면 『동아일보』에 게재된 「歲首種種」은 1925년 1월 1일자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1925년 2월 8일의 「윳」은 음력 설날과, 1925년 4월 6일 「한식」, 1925년 6월 25일자 「단오」의 경우에도 양력 6월이지만 음력 5월에 해당한다. 책 『학창산화』에는 이러한 계절 혹은 명절과의 과의 연계가 없어졌다. 『동아일보』의 「학창산화」는 하루의 중요한 일과 연동된 글쓰기가 이루어졌다. '상신일', '입동절'과 연동된 글이 대표적이다.

① "금일은 上申日이니 猿猴에 관하여 다소 적어보려 한다. 금일부터 개시하여 地文 대표동물로 12일을 보낼 예정이라 이왕 적은 동물에 관하여도 다시 적게 될지 모를 것이다."[35]
② "月前 近畿에 우박이 와서 禾穀과 채소에 다소 해를 끼치더니 일전의 우박이 비에 섞어 오고 추위가 그 뒤를 이어서 立冬節을 톡톡히 지내게 되었다."[36]

내용은 같으나 제목의 편집이 이루어졌다. 「간단의 가치」는 「간단」으로, 「도덕에 대하여」는 「도덕」으로, 「의국 문명」은 「蟻」로, 「낙타의 예비성」은 「낙타」, 「철정을 지남으로 사용」은 「지남」 등으로 제목을 바꾸었다. 체계의 구성과 함께 『학창산화』 표제어의 제목이 보다 간략하게 정리된 것이다. 1925년 1월 3일자 「학창산화」의 기사에는 제목이 없는데 추후 『학창산화』로 출판될 때 「정음」이란 제목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1924년 10월 3일자 「사진 전송」은 "좋겠습니다"라고 끝나는데, 『학창산화』에서는 "좋을 것이다'로 수정되었다. 책읽기를 편하게 하기 위한 필자의 독자에 대한 배려였다고 판단된다.

근대 학문의 분류와 체계화가 되었다. 예를 들면 『학창산화』 101면의 범죄학의 세분화가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짧고 정해진 분량의 글이기에 자신의 생각을 '정답'이라고 주장하기 쉽다. 그런데 홍명희는 "인류가 사회 공동생활을 경영하게 됨으로부터 도덕이 가장 큰 필요조건이 된 까닭이다. 그러나 도덕이 유동 변천하는 것이요 선악의 설명이 순환설밖에 취할 것이 없음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37]라고 보았다. 그는 도덕의 "유동 변천"을 반영한 '유연한' 사고를 견지했다.

아울러 하나의 완성된 체계와 구조를 지니지 않은 채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다고 보았을 때. 홍명희의 대중 지식 관련 서적의 구성은 그의 추후 계획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는 개미 사회에 관해 서술하면서 "이 사회현상은 현금 인류사회현상과 흡사한 점이 많아서 흥미가 있음으로 타일 상세한 연구를 소개"[38]한다고 해서 '상세한 연구'를 약속했다. 아울러 기형아의 실례에

35) 홍명희, 「猿」, 『동아일보』 1925.1.25.
36) 홍명희, 「우박」, 『동아일보』 1924.11.12.
37) 홍명희, 『학창산화』, 조선도서주식회사, 1926, 137면.
38) 같은 책, 1926, 7면.

관한 주제에서 “진기한 실례를 소개하겠다 함도 역시 日前에 약조한 바이다. 지금 그 약조를 이행하여 그 설명의 실례를 보이려 한다”[39]라고 해서 향후 글쓰기의 보완, 보충을 기약했다.

한편 신문 연재의 글이기에 지면의 제한이 고려되었다. 홍명희는 활동사진을 서술하면서 “활동사진에 대하여 예술적 가치라든지 교육적 효과라든지 議論할만한 중요한 문제가 많이 있으나 이번은 지면이 부족하여 고만 붓을 그칠 수밖에 없다”[40], 기형아에 관해서는 “雙體 기형아는 세계의 진기한 예가 적지 않으나 지면이 부족하여 대개라도 소개할 수 없으니 후일을 기약하고 이번은 이로써 그만두고자 한다”[41]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자신의 역할을 지식의 소개에 限定 내지 局限한 것이다. 「색과 상징」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色學에 관한 지식이 빈약한 사람으로 색을 말하랴하니 남의 저서를 抄譯하거나 摘錄하는 것이 형세에 면치 못할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명예스럽지 못한 것은 정한 일이다. 立德 立功은 말한 나위도 없고 立言까지 못하는 바에 과거에 주어 들은 것을 적으나 현재 보는 책을 베끼나 경중이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 그러하니 초역도 하고 적록도 한 것이다. 또 그래도 그렇지 않게 생각하여 이왕에 들어 두었던 것을 좀 적어 볼까한다.[42]

이러한 근대적, 과학적 지식의 소개는 일본인 학자 혹은 일본을 경유해서 수용한 서양 지식에서 비롯되었다. 홍명희는 근대 관련 지식을 소개할 때 외국학자의 학설임을 분명히 밝혔다. 키스에 관해서는 “접순은 구미에 성행하는 일종 관습이니 (…) 이태리 석학 롬부소가 어느 잡지에 접순의 유래라는 것을 발표한 것이 있다. 그 연구를 소개하면 대강 아래와 같다.”[43], 매독에 관해서는 “일본 羽太鋭治 박사에게서 얻은 지식이 많은 것을 말해두고 그만 그치려고 한다”[44], 비행기와 관련해서 “일본 비행가는 대개 대담하기는 하나 기계에 대한

39) 앞의 책, 1926, 106면.
40) 같은 책, 43면.
41) 같은 책, 105면.
42) 같은 책, 79면.
43) 같은 책, 90면.
44) 같은 책, 95면.

지식과 항공에 관한 지식이 결핍하다고 한다. 이 위에 말은 모두 일본공학사 靑木壽의 저서에서 抄出한 것이다"[45], 「색각과 감정」에서 "일본 심리학자 福來 박사의 저서가 손앞에 있음으로 그중에서 抄譯한다"[46] 등으로 소개했다.

『학창산화』의 많은 주제는 근대와 (자연) 과학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주로 1920년대 시점의 時事와 연동되었다. 일본으로부터의 지식 수용에 관해 홍명희는 '거부감'이 없었다. '인구원리'에 관해서도 "케리(Carey)가 생활자료의 생산은 인구와 동일한 비례나 혹은 이상정도로 증가하는 것이라 인구가 과소하리라고 말서스와 정반대의 의견을 말한 것도 기억할 만하다. 말서스주의의 결함을 대개라도 지적할 여유가 없음은 유감이다. 이것만이라도 소개함에는 일본 河上 박사에게 진 것이 많음을 말하여 두고 그만 그친다"[47]라고 했다. 가와카마 하지메에게 '진 것'으로 표현된 영향을 받은 것은 무엇인지? 아마 1916년 9월-12월 오사카 아사이 신문에 연재된 「가난이야기」의 영향이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동아일보』에 「학창산화」가 소개되던 시기인 1924-1925년 「학예란」과 사설에 『학창산화』에 수록되지 않은 비슷한 주제의 글이 연재되었다. 1925년 3월 4일자 『동아일보』 사설 「신문화건설의 기조-자연과학의 연구」 등이 있다. 당대 사설은 국제적, 국내적으로 중요 사안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 될 때, 위의 두 주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글들이 홍명희의 글로 추론된다.

한편 홍명희의 『학창산화』에 최남선의 글 사이에 「학창산화」의 많은 글이 존재한다. 1925년 2월 8일 「윳」부터 1925년 8월 12일 「제6감」까지 약 100여 개의 주제가 주목된다. 「학창산화」의 전체 내용 가운데 앞의 부분과 뒷 부분은 홍명희와 최남선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100여 개의 주제의 필자는 불분명하다.

전체적인 경향은 언어, 꽃을 중심으로 한 식물, 파리, 모기 등을 중심으로 곤충은 홍명희의 「학창산화」의 표제어와 연동된다. 그렇지만 홍명희의 글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은 『학창산화』의 표제어와 중복되는 「연금술」(1925년 5월

45) 앞의 책, 1926, 49면.
46) 같은 책, 76면.
47) 같은 책, 162면.

22일), 「연초」(1925년 6월 14일), 「螢」(1925년 7월 12일) 주제도 존재한다. 하지만 주제가 동일하지만 내용이 중복되지는 않는다.

홍명희의 글의 연장임은 불분명하다. 홍명희는 1925년 4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시대일보로 자리를 옮겼다.[48] 따라서 홍명희의 글의 연장에서 이해해도 가능하고 또한 '전문가'라고 표현된 다른 필자군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최남선의 투고문이 아닌 것도 분명하다. 최남선은 1924년 6월 시대일보 사장에서 물러났다. 1925년 8월 10일자에 동아일보 기자가 독자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최남선의 근황을 소개했는데, "육당은 본래 학자의 육당입니다. 일시 그릇된 목적으로 경영자의 육당이 되었습니다. (…) 다시 학자로 돌아간듯하외다."라고 해서 '학자' 최남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남선이 깊게 연구하는 영역을 '조선의 고유종교'라고 언급했다.[49] 이후 최남선은 「학창산화」에 1925년 8월 4일자 「사고전서」로부터 1925년 11월 24일자 「상ㅅ달」까지를 기고했다.

한편 『학창산화』의 중요한 한 주제는 여성, 조선학에 관한 논의가 주목되어야 한다. 홍명희는 "우리 구식 가정 부녀"[50]에 관해 언급하면서 동시에 "남녀가 근본적 지위에서 평등"[51]을 언급했다. 그리고 "연암(박지원-인용자)의 虎叱은 다시 얻기 어려운 名文이니 우리나라 한문학에 있어서 범의 덕이 또한 크다 할 것이다"[52] 등의 서술에서 확인되는 그의 '조선학' 이해도 추후 검토 내용이 된다.

『학창산화』의 내용은 『조선사연구초』의 「서문」의 내용과 연동되었다. 『조선사연구초』는 사론 모음집인데 「서」는 병인 소춘에 쓰였다. 홍명희는 『조선사연구초』를 편찬한 이유를 「서」에서 "나의 친구 신단재의 연구적 사론 약간 편을 수집한 것이니 모두 한번 신문지로 세상에 발표된 것이다. (…) 작년 秋"라고 밝혔다.작년은 1928년을, 병인은 1926년을 의미한다. 『조선사연구초』는 1929년에 이루어졌지만, 1926년부터 준비되었다고 판단된다. 홍명희는

48) 강영주, 『벽초 홍명희 평전』, 사계절, 2004, 133면.
49) 만년필, 「낙산 일람각에서 독서 吟詩로 소일」, 『동아일보』 1925.8.10.
50) 홍명희, 앞의 책, 1926, 31면.
51) 홍명희, 같은 책, 164면.
52) 홍명희, 같은 책, 14면.

이어 「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단재는 자기의 고심 연구한 것을 草하다가 갑자기 없애버리는 버릇이 있으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草한 것을 다시 살펴보고 불만을 느끼는 까닭이다. 그의 불만하여 하는 모양으로 보면 그의 역사상 연구가 멘틀리란 학자의 수학, 언어학 지식과 같이 암중에 매몰되고 말른지도 알지 못할 일이다. 주옥이 매몰됨을 아까워함은 常情이니 나는 한갓 나의 친구를 위하여 謀忠함이 아니요 심상한 주옥으로 比치 못한 단재의 연구를 일단이라도 매몰치 아니하려고 함이다.[53] (밑줄 강조-인용자)

멘틀리는 누구인가? 멘틀리(Mentelli)는 언어학자이자 수학자였다. 홍명희는 『학창산화』에서 그를 "발표한 저작이 없으나 그 조예조차 헤아리기 어려우나 발표한 것 없이 이름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학식이 상당하든 모양이다"[54] 라고 평가했다. 멘틀리가 익사해서 "발표한 저작이 없어 다년 硏鑽한 결과도 생명과 함께 소멸되어 버렸다"라고 하면서 "멘틀리에 收獲은 자기의 지식욕을 만족시키어 얻은 기쁨과 즐거움이다.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후세 명예보담 학자 자기에게는 더 큰 수확이라 한다"[55]라고 밝혔다.

홍명희가 신채호를 '무명'으로 본 것은 분명 아니다. 물론 '무명인물'에 관한 홍명희의 애정은 "인류사회에 공헌함이 있으랴고 신실한 맘으로 노력하든 인물이 많이 무명씨가 되야버리고 雜心이 많은 인물이 거의 다 유명하게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는 史傳上 유명한 인물보다 그 자취가 泯滅하여 차자질 곳이 벗는 무명한 인물을 경앙하는 맘이 가지 않을 수 없다"[56]라고 강조한 점에서 확인된다. 멘틀리를 언급한 것은 그가 신채호의 글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까를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

53) 홍명희, 「서」, 『조선사연구초』, 조선도서주식회사, 1929.
54) 홍명희, 『학창산화』, 조선도서주식회사, 1926, 181면.
55) 같은 책, 182면.
56) 같은 책, 171면.

4. 『조선사연구초』의 편집과 출판

『조선사연구초』는 홍명희가 편집해서 1929년 6월 조선도서주식회사에서 출판되었다. 조선도서주식회사는 1920년대 전반기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서를, 1925년 학생들을 위한 각종 학습관련서를 발행했다.[57] 홍명희는 학창시절부터 독서에 취미를 가졌고, 『학창산화』에서도 서적의 역할에 관해 "인류에 문화가 진전하여옴에 비록 여러 가지 물건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있다하나 서적에서 그 공이 지날 것은 없을 것이다"[58]라고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한편 홍명희는 1929년에 간행된 『조선사연구초』의 「서」에서 "무한한 호의로 출판을 맡어 힘써준 친구 洪石下에게 감사한 뜻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홍석하는 누구인가? 1926년 9월 간행된 홍명희의 『학창산화』의 발행자 조선도서주식회사 대표가 洪淳泌을 말한다. 홍순필은 대동법률전문을 나와, 1908년경 출판사 보문사와 인쇄소 성문사를 운영했고, 1923년경부터 1930년까지 조선도서주식회사의 대표를 맡았다.[59] 홍순필과의 교유관계를 바탕으로 『조선사연구초』의 출판이 이루어졌다.

1920년대 중후반부터 조선 문화계 안에서의 사회적 역할이 높아졌다. 안석영은 "벽초는 그때(1910년대-인용자)에 지인 간에는 명성이 높았으나 그후에 조선도서주식회사에 있을 때로부터 동아일보 편집부장, 시대일보 사장 이렇게 그 문학에 대한 큰 포부를 흉금에 감추고 문화기관에 있음으로 명성이 높았었고 (…) 林巨正傳을 발표하여 늦게 얻은 그 명성이 오히려 영원할 것 같이 그 작품이 걸출인 것이다"[60]라고 평가했다. 홍명희가 당대 언론사·출판사와 같은 '문화기관' 활동에 주목한 것이다.

1920년대 중후반 문화출판계에서 명성이 높았던 홍명희는 신채호의 글을 엮어 『조선사연구초』를 출판했다. 박걸순은 신채호의 『조선사연구초』를

57) 방효순, 앞의 글, 88-91면.
58) 홍명희, 앞의 책, 1926, 73면.
59) 방효순, 앞의 글, 63-65면.
60) 석영(안석주), 「조선문단 30년 측면사」, 『조광』 4-10, 1938.10., 135면.

"1920년대 단재 사학의 성숙기를 대표하는 저술일뿐만 아니라, 당시까지 민족주의 역사학의 연구 수준과 성과를 대표하는 저술"[61]로 평가했다. 『조선사연구초』의 목차는 「고사상이두문명사해석」, 「삼국사기중동서양자상환고증」, 「삼국지동이열전교정」, 「평양패수고」, 「전후삼한고」, 「조선역사상일천년래제일대사건」의 순서로 이어졌다.

신채호가 1880년, 홍명희가 1888년에 출생했는데, 「서」에서 '나의 친구'라는 표현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중국 상하이에서의 교유관계가 존재했지만, 두 사람의 사적 편지에서는 보다 '친밀한' 관계가 표현되었다.[62]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미래에 관한 전망의 일치에서 비롯되었다. 신채호는 향후 미래에 이루어질 민족운동에 관해 낙관적 전망을 유지했다. 그리고 1920년대 전반기 아나키즘을 수용했는데, 이 이념과 사상도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홍명희의 에스페란토어와 이에 기초한 '상호부조'의 강조가 아나키즘에 관한 우호적 입장에 해당한다.

> 인류가 여러 가지 언어를 가지게 된 것은 인류의 일대 불행이다. (…) 만일 인류가 상부상조하는 정신으로 인문 발전에 노력하였다면 현금 세계문명의 界線은 수 백 년 전에 경과하였을 것이 분명한 일이다.[63]

'과학 만능의 미래', 과학에 기반한 '성공', '진보'는 두 사람이 공유할 내용이었다. 홍명희는 과학으로 대표되는 근대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이해했다. 『학창산화』를 통해 홍명희는 "1840년부터 1870년까지 30년간은 과학 만능 사상이 그 절정에 달하였었다"[64], 수은에서 금을 만드는 것은 "타 과학적 발달과 같이 此도 기십년 내외간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65], 라듐의 발견으로 "의료상 진보가 있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61) 박걸순, 『신채호전집』 2, 2007, 30쪽.
62) 1920년대 신채호와 홍명희의 '우정'에 관해서는 강영주, 「벽혈단심, 단재와 벽초의 우정」, 『역사연구』 37, 역사학연구소, 2019 참조.
63) 홍명희, 『학창산화』, 조선도서주식회사, 1926, 115면.
64) 같은 책, 2면.
65) 같은 책, 59면.

과학상 중대문제가 이로 인하여 해결되고 또는 제출된 것이 적지 아니하다"[66]라고 보았다.

또한 신채호와 홍명희는 민족운동에서도 같은 계열에서 활동했다. 홍명희가 사회주의에 보다 깊게 연관되었지만,[67] 두 사람 모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민족주의 좌파)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홍명희는 1923년 7월에 창립된 사회주의 사상단체인 신사상연구회의 창립회원으로 참여했고, 1924년 11월에 화요회의 간부로 활동했다.[68] 그리고 1927년 1월 신채호와 홍명희 등 28명은 신간회 발기인으로 함께 참여했다.[69] 당시 신간회운동에 관해 홍명희는 "민족운동만으로 보면 가장 왼편 길이나 사회주의 운동까지 겹치어 생각하면 중간길"[70]이라고 규정했다. 제국주의 일반과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 역시 양자의 정치적 입장이 같았다.

대중 출판물인 『학창산화』는 신문에 수록된 글을 편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일제의 식민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의 입장을 피력하기는 어려웠다. 서양 제국주의에 관해서는 "아편전쟁은 상인국인 英吉利의 필요한 수단이나 신사국인 영길리의 체면을 손상한 것이다"[71], "금을 귀중히 여김으로 (…) 廉直을 중요한 도덕으로 여기던 동양보다 溪壑같은 욕심을 가진 서양인 역사에 더욱이 현저한 예를 볼 수 있다"[72]라고 비판했다.

일본 제국주의에 관해서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비판의 입장을 표방했다. 홍명희는 1925년 9월 15일 유학생 출신의 전문학교 교수와 신문기자 26명이 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를 표방한 조선사정조사연구회에 참여했다.[73] 그리고 "홍의장군 곽재우가 왜란을 막으려고 의병을

66) 홍명의, 앞의 책, 1926, 61면.
67) 홍명희는 「매음 기원」에서 "매음이 소위 문명의 진보에 따라 점차 발달함은 諱치 못할 일이다. (…) 장기매음, 소위 첩을 둠이 거의 유산자의 특권임은 물론이요 일시적 매음자도 다수가 유산자이니 이에서 매음은 존재 이유가 不確한 추한 행위가 될 뿐이다"라고 해서 有産者에 대해 비판했다(홍명희, 같은 책, 88-89면).
68) 장신, 앞의 책, 91면.
69)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혜안, 2007, 256면.
70) 홍명희, 「신간회의 사명」, 『현대평론』 창간호, 현대평론사, 1927.1.
71) 홍명희, 『학창산화』, 조선도서주식회사, 1926, 34면.
72) 홍명희, 같은 책, 54면.

일으키니 神馬가 스스로 이른 것은 유명한 古談이다"[74], "일본 백마총은 신라 儒禮王이 일본을 정복한 유적이라 하니 일본 서적에 기록이 명백하다 한다"[75]라고 언급했다. 「식물별의」에서 언급한 무궁화와 벚꽃의 대비가 그러했다.

> 근화 무궁화니 우리 조선에 무궁화가 많아서 근역이라는 별칭이 있었다. 그럼으로 지금 국가 기호가 될 것 같이 말하나 이것은 邃然히 정할 것이 아닌 듯하고, 앵화 일본인은 白花의 왕이라 하야 다만 花라고 하면 앵화를 가리켜 말함이다. 앵화는 일본 국가의 기호라. 일본 국민성의 장단을 앵화와 비교하여 말한 일본인이 적지 아니하다. 그중에 장처로는 단합하여 색채가 난다함이 제일이 될 것이요 단처로는 繁盛期日이 短促하다 함이 제일이 될 것이다."[76]

『조선사연구초』는 신채호의 신문 연재글을 모아 편집한 책이다. 『동아일보』 및 『시대일보』에 연재될 당시의 신채호 글의 제목과 체제는 다음과 같다. 「고사상이두문명사해석」-〈특별부록〉, 〈월요란〉의 형식 북경에서 신채호, 부제로 '古史上 국명, 관명, 지명 등'이었다. 「삼국사기중동서양자상환고증」-「조선사연구초(1)」에 부제로 '고사상 동서양자 박구인 실증」, 북경에서 신채호 기고 형식으로 수록되었다. 「삼국지동이열전교정」 「삼국지동이열전의 교정」(조선사연구초)의 방식, 〈寄書〉로, 북경 신채호로 표현되었다. 「평양패수고」 「조선사연구초(3)」 부제를 평양패수고」 상중하로 연재되었다. 「조선역사상일천년래제일대사건」 서론과 결론을 갖춘 형식이었다.[77] 신문에 연재된 신채호의 글과 『조선사연구초』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

73) 이지원, 앞의 책, 271면.
74) 홍명희, 앞의 책, 1926, 24면.
75) 같은 책, 24면.
76) 같은 책, 153면.
77) 『조선사연구초』에 관해 평가는 당대 문일평, 「독사한평」, 『조선일보』 1929.10.15.; 홍기문, 「조선역사학의 선구자인 신단재학설의 비판」(8회), 『조선일보』 1936.2.29.-3.8. 등에서 확인된다. 두 사람 모두 신문 연재물이 아니라 책 『조선사연구초』를 언급했다.

〈표 3〉 신채호의 신문 글과 『조선사연구초』의 목차

「이두문명사해석」 - 『동아일보』 1924년 10월 20일, 10월 27일, 11월 3일	
(신문) 吏讀文名詞解釋	(책) 古史上吏讀文名詞解釋法
2 (1) ~ (4) 3 (5) 4 (6) 5 6 7 8 결론	 1. 서론 2. 해석방법 (1) ~ (6) 3. 결론
「삼국사기중동서양자상환고증」 - 『동아일보』 1925년 1월 3일	
(신문) 古史上東西兩字박구언實證	(책) 三國史記中東西兩字相換考證
1. 本草 公布의 인연 2. 『東有樂浪』의 是非 3. 삼국사기에 박구언 동서양자 4. 동서양자의 박구언 원인의 假定 5. 가정부터 실례 6. 兩種史冊의 不同 7. 金富軾의 糊塗	 1. 『東有樂浪』의 是非 2. 삼국사기에 박구언 동서양자 3. 동서양자의 박구언 원인의 假定 4. 가정부터 실례 5. 兩種史冊의 不同 6. 金富軾의 糊塗
「평양패수고」 - 1925년 1월 30일, 2월 6일, 2월 9일, 2월 13일, 2월 27일, 3월 6일, 3월 9일, 3월 13일, 3월 16일.	
조선사연구초(3) 평양패수고	(신문) 평양패수고
1. 서언 제1의 착오 제2의 착오 제3의 착오 제4의 착오 갑. 낙랑국과 낙랑군의 구별 을. 낙랑과 평양의 구별 병. 백제중엽의 관계한 낙랑 정. 중국사의 지리지와 동이열전에 보인 낙랑 6. 결론	평양패수고(상) 제1의 착오 제2의 착오 제3의 착오 제4의 착오 이상 4개의 착오 평양패수고(중) 1. 낙랑국과 낙랑군의 구별 평양패수고(하) 2. 낙랑과 평양의 구별 3. 백제중엽의 관계한 낙랑 4. 중국사의 지리지와 동이열전에 보인 낙랑 6. 결론

첫째, 신채호의 「吏讀文名詞解釋—古史上 국명, 관명, 지명 등」은 『동아일보』에

〈특별부록〉으로 연재되었다. 목차는 1이 없이 2~8로 구분되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구성되었다. 약간의 편집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신문 연재 때와 달리 『조선사연구초』에서는 마침표가 추가되었다. 아울러 신채호의 맞춤법과 홍명희의 맞춤법의 차이라고 생각되는데 신문에서 "부였다(공), 부헛다(백)"이란 부분이 책에서 "부엇다 (공), 부여다 (백)"으로 수정되었다.

둘째, 신채호의 「古史上東西兩字박구언實證」은 〈조선사연구초 (1)〉이란 제목을 달고 연재되었다. 『동아일보』에 실린 첫 부분 〈本草 公布의 인연〉 "자기의 확신하는 것이라고 꼭 다 옳은 것이 아니지만 자기는 꼭 옳은 줄로 확신하는 것이라야 세상에 공포할 용기가 있는 것이다. 이編은 나도 내말의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한다. 다만 다소의 노력으로써 이것을 일반 독자에게 올리노라"라는 부분이 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홍명희가 왜 이 부분을 편집해서 출판했는지 그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신문 연재를 하면서 신채호는 자신의 「조선사연구초」의 다양한 글들이 신문을 읽는 일반 독자에게 전달될 것임을 염두에 두었다. 한편 證據가 証據로, "남아 있음이라"가 "남아 있음인가 한다" 등으로 수정되었다.

셋째, 「삼국지동이열전교정」은 책과 신문연재 글의 형식과 체제는 동일했다. 구체적으로 「삼국지동이열전의 校正」은 〈寄書〉라는 형식으로 〈삼국지동이열전의 校正 (조선사연구초)〉으로 5회 연재되었다. 1월 23일 기사와 관련해서 "1월 23일付 「삼국지동이열전校正」 제 8행의 '蓋平'은 '海城'의 誤植이기 玆에 正誤함"이란 글이 말미에 서술되었다. 홍명희가 편찬한 『조선사연구초』에 이것이 반영되어 '海城'으로 수정되어 출판되었다.

넷째, 『시대일보』의 「전후삼한고」는 '북경에서 신채호'로 10회 연재되었다. 『시대일보』에 연재된 「전후삼한고」의 목차 "1. 인용서의 선택 (1)~(6) 2. 前삼한, 삼조선의 전말 (1)~(5) 3. 後삼한 - 삼국지에 보인 羅加濟 3국 (1)~(7)"는 『조선사연구초』의 목차와 같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편집자 홍명희가 『조선사연구초』를 출간할 때 깊게 관여한 것이 분명하다. 신채호는 『동아일보』에 1924년 10월 「문제 업는 논문」, 1925년 1월 「낭객의 신년만필」 등을 집필했다. 『조선사연구초』에

게재된 글들은 보다 조선 역사에 관련된 글을 모은 것이다. 그리고 신문에 게재되었던 원고를 『조선사연구초』로 편집했을 때, 문체와 체제에 일정한 변용을 가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신채호는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中華報의 사설을 쓰고 생계를 해 나가던 때건만 誤字 一字를 내었다 하여 그날로 단연 집필을 거절하였다"[78]라고 알려질 정도로 자신의 문장에 손을 대는 것을 '거부'했다. 물론 당시 신채호는 뤼순 감옥에 투옥된 상태여서 『조선사연구초』의 출판과정에 개입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홍명희를 포함한 당대 책을 출판한 편집자의 '재량권'이 존재했다고 판단된다.

한편 신채호의 역사논문집 「조선사연구초」는 조선 역사와 문화에 관한 홍명희의 관심이 반영되었다. 『학창산화』에서 홍명희는 조선적인 것의 '독자성', 독창성에 주목했다. 훈민정음에서 조선 문화의 '자랑'거리를 찾았다.

> 세계에 완전한 문자가 있다 하면 그곳 우리의 正音의 이름이며 세계에 기묘한 문자가 있다 하면 그 역 우리의 정음의 가르침이다. 백 가지 천 가지 모든 것이 남만 못한 우리도 오직 문자 하나는 남에게 자랑하고 남음이 있다.[79]

일반적으로 '조선학'의 독자성 주장은 중국적인 것의 비판 혹은 부정과 연동되었다. 반면 홍명희는 이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취했다. 한자의 영향에 관해 그는 "우리에 문화는 원래 고유한 것도 없지 아니 하였으나 남의 것을 수입함에 많았고 그 수입은 대개 한자에 소개를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동방 제족 중 선진지위를 얻음은 漢字에 은혜가 적지 아니 하였다. (…) 금일에 이르러 생각하면 한자가 알기 용이치 않고 쓰기 難便하나 古時 선진의 명예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온당치 못하다 그러나 古時 은혜만 생각하고 금일 폐해를 무시함은 더욱 온당치 못하니"[80]라고 보았다. 한자와 관련해서

78) 신석우, 「단재와 '矣' 자」, 『신동아』 1936.4.
79) 홍명희, 『학창산화』, 조선도서주식회사, 1926, 111면. 또한 "정음은 독특한 정음이니 세종대왕과 및 諸學士의 創作이 아니라 하기 어렵다."라고 보았다(홍명희, 앞의 책, 113면).
80) 홍명희, 앞의 책, 119면.

과거의 영향과 당대 혹은 미래의 '폐해'를 함께 고려했던 것이다.

5. 맺음말

1920년대 중반 홍명희는 조선도서출판주식회사를 통해 『학창산화』란 저서와 신채호의 글을 편집한 『조선사연구초』를 출판했다. 홍명희의 이러한 출판활동을 통해 1920년대 중반 '근대'와 조선적인 것에 관한 이해 및 지식 보급을 확인하고자 했다. 특히 신문에 개제된 '학예'가 도서 『학창산화』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상식)의 소개의 체계와 방식을 살펴보았다.

1924-25년 홍명희는 동아일보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새로 신설된 「학예란」에 '학창산화'를 연재했다. 학예란은 '과학의 민중화'를 지향했지만, 홍명희의 글은 과학 관련 지식 및 '조선적인 것'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다. 보통학교 졸업한 '대중 독자'를 대상으로 '보통' 지식을 전달하고자 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은 도서 『학창산화』로 출판되는 과정에서 지식의 체계화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실현되지 않았지만, '학창산화'의 서술 내용을 토대로 향후 홍명희의 출판 및 저술 계획을 살펴볼 수 있다.

1920년대 중후반 신채호의 글이 『동아일보』, 『시대일보』 등에 연재되었다. 홍명희는 다양한 신채호의 글 가운데 한국의 역사 관련 글을 모아 1929년에 『조선사연구초』로 편집해서 출판했다. 홍명희와 신채호의 교유관계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사상적 입장이 유사하기에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신문 연재글이 책으로 편집되는 과정에서 목차와 체계 및 표현에서의 변화를 통해 편집자 홍명희의 '재량권'을 확인하고자 했다.

한편 『동아일보』의 「학창산화」에는 다양한 필자가 참여했다. 동아일보의 의 학예란 기획은 홍명희의 '학창산화'를 포함한 다양한 집필군의 학문적 성과가 반영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남선의 「학창산화」에 수록한 글은 조선 역사와 문화에 관한 그의 대중적 글쓰기 활동을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아울러 1925년 10월 8일부터 9일까지 「학창산화」에 게재된 「경복궁의

석천록」은 『최남선 전집』에 수록되지 않은 글이다. 이글을 필자를 최남선으로 추론하면, 1920년대 중반 최남선의 한국 역사와 문화 연구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이렇듯 홍명희와 최남선 사이에 「학창산화」 게재 글은 당대 '보통' 지식의 확산을 살필 수 있는 주제와 내용이 된다고 판단한다.

▮ 참고문헌

『동아일보』
『시대일보』
『신동아』
『조선일보』
홍명희, 『학창산화』, 조선도서주식회사, 1926.

강영주, 『벽초 홍명희 평전』, 사계절, 2004.
_____, 「자료정선 홍명희, 『학창산화』」, 『개념과 소통』 13, 한림과학원, 2014, 196-203면.
_____, 「벽혈단심, 단재와 벽초의 우정」, 『역사연구』 37, 역사학연구소, 2019, 447-477면.
박걸순, 「1920년대 신채호의 역사인식과 역사서술—『조선사연구초』를 중심으로」, 『호서사학』 5, 호서사학회, 2008, 105-142면.
방효순, 「조선도서주식회의 설립과 역할에 대한 고찰」, 『근대서지』 4, 근대서지학회, 2012, 54-106면.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혜안, 2007.
장 신, 『조선·동아일보의 탄생』, 역사비평사, 2021.
하타노 세츠코, 최주한 옮김, 『무정을 읽는다』, 소명출판, 2008.

【Abstract】

Hong Myung-hee's writing and compilation activities in the late 1920s

Ryu, Si-hyun*

The construction of the ideological and cultural history of the Japanese occupation requires an analysis of the writings published in the media and the books edited and published by writers. Hong Myung-hee's writing and editorial activities in the mid-to-late 1920s are an important part of the composition of the academic sphere of the time. In 1924-25, he collected his articles published in the Dong-A Ilbo academic section and published them in a book, *Hakchangshanhwa* in 1926. At the same time, Shin Chae-ho collected his articles published in Dong-A Ilbo in 1924-25 and published *Chosunsayungucho* in June 1929.

Much has been written about Shin Chae-ho and Hong Myung-hee from the perspectives of national movement history, history of ideas, and social history. However, not much research has been done on the compilation process of Hong Myung-hee's *Hakchangshanhwa* and Shin Chae-ho's *Chosunsayungucho* in the 1920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Hakchangshanhwa* and *Chosunsayungucho* that Hong Myung-hee wrote and was involved in through the Joseon Book Compan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hanges in the media, especially the reorganization of newspaper articles into books.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tents of popular or 'ordinary' knowledge that the newspaper tried to introduce through the editorial process of *Chosunsayungucho*, focusing on the contents of the Dong-A Ilbo academic arts column. To this end, I examined, first, the system and content of the articles introduced in Dong-A Ilbo as *Hakchangshanhwa,* second, the category and construction process of the reconstructed *Hakchangshanhwa*'s 'knowledge' published in 1926, and third, the transition of the publication system and content of Shin Chae-ho's historical articles published in the newspaper in 1924-25 to *Chosunsayungucho* in 1929, where Hong Myung-hee was the editor. This sheds light on the editorial process and the construction of 'readers' in the popular publications of colonial Korea in the 1920s.

Keywords: *Chosunsayungucho*, Dong-A Ilbo, *Hakchangshanhwa*, Hong Myung-hee, Shin Chae-ho.

접수일: 2023.03.29. ‖ 심사일: 2023.04.17. ‖ 게재확정일: 2023.05.23.

* Professor, Gwangu National Univ. of Education